



4면

사람담은 전주시 주거정책 '혁신사례'로 공유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음 5월 5일) 제279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거리두기 1.5단계 3주간 더 연장

전북도, 내달 4일까지 정부 조치 발표 따라

여름철 물놀이 시설별 방역대책 추진키로

전북도가 13일 종료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4일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예외 적용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주째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500명대 후반으로 정체 양상이고, 병상 등 의료 대응 여력도 충분하지만 원활한 예방 접종을 위한 안정적인 유행관리를 위해 방역 수칙을 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이전과 달라진 조치는 스포츠경기장 관중 입장이 1.5단계 30%~50%로 완화,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99인~4,000인)이다. 다만,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증가 시에는 운영시간 제한 또는 단계 격상을 검토할 계획이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계 격상이 필요하면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방침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1주간 총 발생환자는 33명, 일(日) 평균 4.7명, 감염재생산지수는 0.73(전국 0.97)로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여름철 물놀이 시설별 방역 대책, 2분기 백신 예방접종 재고 대책, 적극적인 백신 예방접종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최근 방역상황을 고려한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시설별 방역 대책 (6.14~8.31, 특별대책기간 7.15~8.16)을 시행, 여름철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물놀이 시설별 방역관리자를 지정, 유급안전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활용한 방역(안전)관리요원 고정 배치 및 순찰을 강화해 방역수칙 미이행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라도 백신접종 완료(2차 접종 후, 2주 경과)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면회객이 접종 완료한 경우,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만 실시하고 면회가 가능하다. 환자만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률 7% 미만 요양병원은 추가로 면회객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전북도는 요양병원이 관리편의,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면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은 1차 접종이 접종센터에서 6월 13일까지, 60~74세 어르신은 위탁의료기관에서 6월 19일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순위 접종대상자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남은 2분기까지 접종률 제고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15일부터 28일까지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해경 등),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취약시설 인소·종사자 등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신규 추가 접종에 차질 없도록 의료·행정인력 및 예비방역단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백신 접종참여 제고 방안으로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 할인·면제, 공공시설 활용 문화체험 이벤트, 접종배치 제공 등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유행이 안정세인 것 같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기에 도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강조하며 "물놀이 등 이동량이 많은 계절이지만,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만남, 외출, 여행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등 타인과의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방역 당국의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종합경기장 전시컨벤션·호텔 건립 '첫 단추'

2025년 완공 목표... 행안부, 올 연말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의회 승인 얻은 후 행정절차 이행

과 국제회의장 등이 갖춰지게 된다. 마이스(MICE)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회전시회(Events & 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올 연말 완료 예정인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종합경기장에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짓는 게 ▲시민의 편익과 수요에 맞는지 ▲지방재정 투자사업으로 타당인지 ▲재원 조달은 가능한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시는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의 규모 건립시기, 운영방법 등을 확정해 전주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승인을 얻을 방침이다. 이어 각종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오는 2025년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준다는 계획에 따라 사람, 생태, 문화를 담은 시민의 숲을 조성하고 MICE 산업을 이끌어갈 전시컨벤션과 호텔을 건립하는 등 새로

운 랜드마크와 성장거점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갈 것"이라며 "혁신도시 입주기관의 대규모 국제회의와 전시 수요를 충족하고 제3금융도시가 갖춰야 할 기반시설로 전시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고용 유발 등 대규모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983년 도민과 시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전주종합경기장에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예술의 숲 ▲생태놀이터로 꾸며지는 놀이의 숲 ▲유네스코 음식문화도시의 특색을 살린 미식의 숲 ▲국제 규모 전시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는 MICE의 숲 ▲정원의 숲 등 다섯 가지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윤상기자

민주화에 기여한 청춘을 기리며

6·10 민주항쟁 기념

도,故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식

1987년 6월항쟁 시기

폭압적인 정권에 항거

전북도가 제34주년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故 조성만 열사의 국민훈장 추서식을 지난 11일 가졌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이날 추서식에는 현재 전주에 거주하는故 조성만 열사의 부모가 참석, 국민훈장 모란장 증서와 훈장을 열사 대신에 받았다.故 조성만 열사는 1964년 12월 전북 김제군 용지면에서 태어났다.

1980년 전주 해상고에 입학한 그해 5·18 광주민주항쟁이 일어났고, 1984년 서울대 자연대 화학과에 입학한 후 명동성당 가톨릭민속연구회에서 활동했다.

1987년 6월항쟁 시기에 서울의 거리와 명동성당에서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고,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8년 5월



전북도가 제34주년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故 조성만 열사의 국민훈장 추서식을 지난 11일 가졌다. 이날 추서식에는 현재 전주에 거주하는故 조 열사의 부모가 참석, 국민훈장 모란장 증서와 훈장을 열사 대신에 받았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15일, 명동성당에서 양심수 석방 등을 외치며 합복 투신 자결에 현실을 외면하던 보수 종교계에 경종을 울리고 폭압적인 정권에 항거함으로써 민주화에 기여했다.

송하진 지사는 "민주유공자 조성만 열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겠

으며, 34년 전 6·10민주항쟁에 함께 했던 시민들과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며 열사의 부모 손을 꼭 맞잡았다.

한편 정부는 6·10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

이 큰 유공자 29명을 선정했다.

/유호상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